

속전속결로 정국 정면돌파

당·정 쇄고기 수입 고시 강행 왜?

실보다 득 판단...대미관계 감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국민 홍보 및 여론 주시 후 고시'라는 입장을 버리고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전격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비롯해 최근 세 차례의 당정회의를 통해 장관 고시 시점을 논의했고, '25일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의뢰, 26일 관보 게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급변한 것은 고시 연기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지난 2일 4·18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른 고시를 유보한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한 고시마저 연기할 경우 미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했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나아가 신뢰 훼손까지 나타날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당정은 나아가 고시 연기사 '국민과의 폭 넓은 소통'보다는 쇠고기 혼란을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열린 정례 당정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시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연법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두 차례 대국민 사과, 청와대 전면 개편, 내각의 일괄사의 표명, 추가협상 등을 통해 쇠고기 정국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 연기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이 검역지침, 원산지 표시제 등 쇠고기 안전을 위한 후속대책을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한 점도 고시 강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더 이상의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시 강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법관 공석 광주·전남 출신 잇나

장성 출신 김항식 대법관 후임 임명 주목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김항식 대법관의 공석을 광주·전남 출신 법조인이 그대로 물려받게 될지 여부에 지역 법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명 늘어난 대법관 14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김항식 대법관을 비롯한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등 3명이다.

이들 가운데 김지형 대법관과 이홍훈 대법관은 전북 출신 이어서 장성 출신인 김항식 대법관이 자리를 옮길 경우 전북 출신보다는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후임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

역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관의 지역 안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져 왔고, 호남 출신 3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 1명은 포함돼야 구색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이 지역 출신 법원장급 인사로는 ▲이태운(연수원 6기) 대전고법원장 ▲김관재(7기) 광주고법원장 ▲손용근(7기) 대구고법원장 ▲오세욱(8기) 광주지법원장 ▲김이수(9기) 인천지법원장 ▲정갑주(9기) 전주지법원장 ▲이상훈(10기) 제주지법원장 등이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과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의 경우 '지역(근무) 법관' 출신이어서 오랜만에 '지역 법관' 출신 대법관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 지역 한 법조인은 "이왕이면 실력과 덕망을 갖춘 지역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번에도 관계가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통상 3~4명을 대법관장에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며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4·7' 공약 대대적 손질 나선다

미래기획위, 광복절 맞춰 새 국가비전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했던 '7·4·7' 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4·7 공약은 매년 7%의 성장을 이뤄내고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에 도달하며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내용.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7·4·7 공약은 이런 비전수립 과정에서 '힘들지만 도달가능한 목표지'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위원들의 경우 대체로 7·4·7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한 자문위원은 "7·4·7 공약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면 풀리도 실현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부 회의에서 밝힌 적이 있다"면서 "한국의 경제가 성숙되는 과정인데 노동력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년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통령 임기내에 현재의 세계경제력 12위에서 7위로

올라서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성장률은 연간 4.6%이었고 앞으로 5년은 더 높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6%대에 오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이에 따라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도달하기 어렵지만 ▲노력한다면 실현할 수도 있는 수치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보다는 높지만 7%에 비해서는 낮은 6% 안팎 또는 5%대 수준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 노동,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회 안가" 다시 등돌린 민주

고시 강행에 초강경 모드 급선회... 한, 가축법 교차투표로 등원 설득

국회 등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통합민주당이 정부 측의 고시 강행 방침에 초강경 모드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의 국회 등원 전제 조건인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권의 고시 강

행을 비난하는 성토장을 발송했다. 손화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 위기를 넘기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 관망났다"면서 "고시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기류를 들여다보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현실적으로 등원의 명분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장외투쟁 국면도 점차 식어가면서 별다른 정치적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

회에서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비공식 회동을 갖고 등원 조건에 대한 이견 절충을 나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 고시 연기 ▲국정조사 실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 등을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 고시 연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쇠고기 특위 구성, 국정조사, 긴급현안질의 등 각종 요구사항을 한두가지로 정리해 온다면 들어줄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며 민주당도 절충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등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관청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과 강의!

박내영교육학

여름방학 기본 문제풀이반 대특강

박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529-0090

개강 7월 4일

www.naeyoung.com

전공국어 최병해 교수팀 개강 7월 5일

강좌명 및 반구성	개강	특징
국어교육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5일(토) 9주 완성 (전강)	*국어교육학 기본 교재(상/중/하)로 진행 *고등국어(하/중/상) 교재로 진행 *2차 논술형 문제 유형 파악 중심 수업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문학/국어학 최종 이론 완성반	7월 7일(월) 10주 완성 (전강)	*문학/국어학 기본 교재로 진행 *최종 마무리 subnote 활용 *2차 논술형 문제 유형 파악 중심 수업
문제풀이 기본반	7월 6일(일) 9주 완성 (전강)	*영역별 기본 문제풀이집으로 진행 *강좌 구성 - 7월 : 문학(4주) - 8월 : 국어교육학(3주)·국어학(2주) *선답형 시험 문제 유형 파악과 혼린 실시 *논술형 시험 적용 훈련 실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임마선 유아교육과정

1차 대비 영역별 객관식 문제풀이반

개강 6월 18일, 21일 22일 강의시간 09:30 - 17:30

[주차별 강의 내용] 현재 상황별 접수중

1주. 유아교육, 유아교육사상, 분야	7주. 언어 발달과 언어 생활
2주. 교육과정론과 총론	8주. 인지 발달과 과학 교육
3주. 신체성 발달과 건강 생활	9주. 수학 교육
4주. 사회성 발달 사회 생활	10주. 부모 교육, 교사론
5주. 사회 생활 II	11주. 교육과정 운영 I
6주. 예술의 발달과 표현 생활	12주. 교육과정 운영 II

* 2차 논술형 주관식 문제반 추후 개설예정

www.eduview.net 0216-1646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첫진도 시작반) 문제풀이특강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고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할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www.mdgoel.co.kr

개강 7월 1일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www.lankor.com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고시, 교정고시, 세무고시, 관세고시, 감사고시, 법원고시, 경찰고시, 교정고시, 보훈고시, 소방고시, 전자고시, 특검고시, 특검고시, 특검고시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71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간강좌) ※

금년 중·하반기 시험

합격수강 회원모집

www.mdgoel.co.kr ☎ 222-4560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시 험 :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 (062)236-2468